롯데의 선택은 역시 윤성빈

신인드래프트 1차 우선지명

최대어 충암고 고우석…LG가 찜
넥센은 이종범 아들 이정후 지명
넥센 제외한 9개 구단 투수 선택

롯데의 선택은 윤성빈이었다. 그리고 예상대로 고우석은 LG의 품에 안겼다.

한국야구위원회(KBO)가 27일 2017 신인 드래프트 1차 우선지명 명단을 발표했는데, 최대어로 꼽힌 충암고 고우석은 서울지역 1순위 지명권을 가진 LG가 지체 없이 선택했다. LG 김현홍 스카우트 부장은 "고우석은 2016년 6경기에서 3승1패(25.1이닝) 방어율 2.88 을 기록했다. 최고구속 149km의 강속구를 던진다. 2015년 12월 무릎 수술을 했는데 바로 야구공부터 찾았을 정도였다. 재활을 통해 야구에 대한 열의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호평했다.

LG에 이어 서울지역 2·3순위 지명권을 가진 넥센과 두산의 선택이 주목됐는데, 각각 휘문고 내야수 이정후와 동국대 사이드암 투수 최동현을 지명했다. 이종범의 아들로 유명한 이정후는 넥센의 지명을 받음으로써 아버지(1994 신인 드래프트 해태 1차 지명)와 아들이 모두 1차지명을 받는 역사를 이뤘다. 넥센은 이정후의 타격재질(고교 통산타율 0.397)을 높이 사 투수가 아닌 야수를 1지명에서 택했다. 두산은 즉시전력감에 가까운 대졸 최동현을 골랐다.

메이저리그가 관심을 기울여 화제성은 고우석을 능가했던 윤성빈은 결국 롯데의 선택을 받았다. 롯데 이윤원 단장은 "이번에 연고지역에서 좋은 유망주들이 동시에 나와 고민을 했지만 그래도 시속 150km 강속구를 던지는 윤성빈의 잠재력을 높이 샀다"고 말했다. 이 단장은 "이제 윤성빈과 계약을 하는 것이 급선무다. 입단하게 되면 큰 투수로 잘 키우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야구계에서는 이미 롯데와 윤성빈이 계약을 완료했다는 이야기가 있다. 정황상, 롯데가 윤성빈 입단에 확신이 섰으니까 1차 지명을 했다고 볼 수 있다.

넥센을 제외한 9개 팀은 모두 투수를 뽑았다. 야구에서 투수가 차지하는 비중을 실감할 수도 있겠지만 학생야구에서 대형타자가 등장하지 않는 현실을 고스란히 투영하고 있다. NC와 한화는 1차 지명에서 포수 자원을 놓고 저울질하다 결국 NC는 김해고 졸업의 좌완 김태현, 한화는 북일고 좌완 김병현을 지명했다. KIA는 효천고 우완 유승철을, 삼성은 경주고 우완 장지훈을 낙점했다. kt도 장안고 투수 조병욱, SK도 야탑고 우완 이원준을 골랐다. 미래 잠재력을 보고, 하드웨어가 건실한 투수 위주로 뽑혔다. 김영준 기자 gatzby@dong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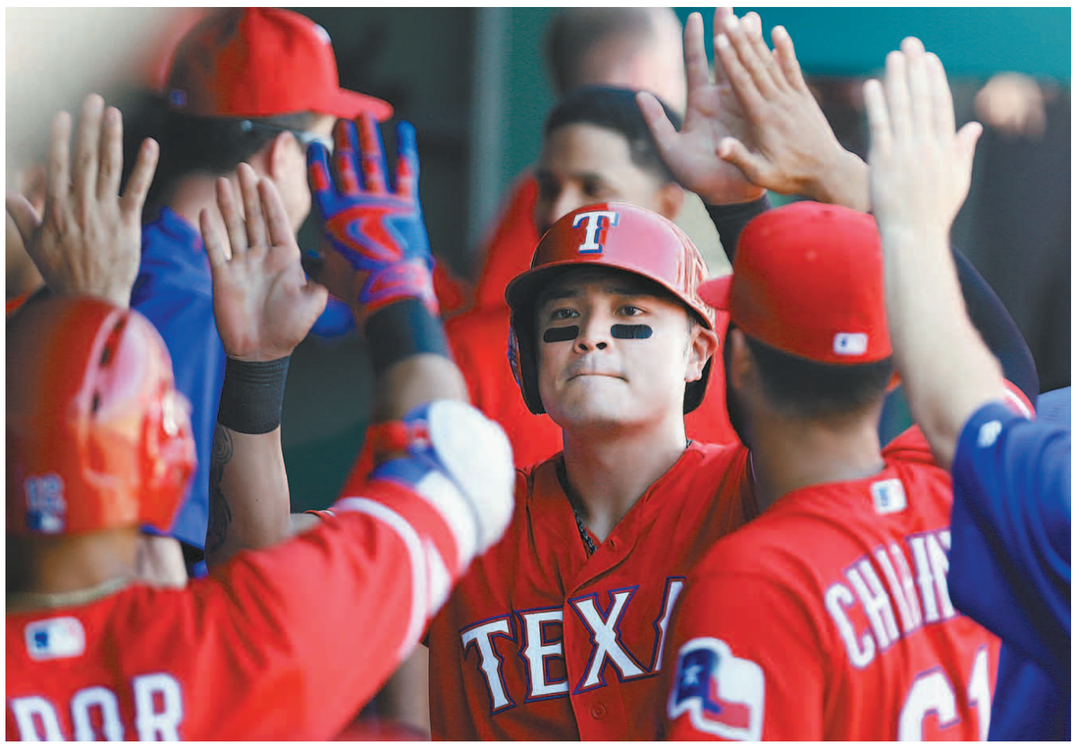

윤성빈


이정후


김병현

2017신인 드래프트 1차 우선지명

팀	1차 지명선수
LG	고우석(충암고 우완)
넥센	이정후(휘문고 내야수)
두산	최동현(동국대 사이드암)
SK	이원준(야탑고 우완)
kt	조병욱(장안고 우완)
한화	김병현(북일고 좌완)
KIA	유승철(효천고 우완)
삼성	장지훈(경주고 우완)
NC	김태현(김해고 좌완)
롯데	윤성빈(부산고 우완)


텍사스의 리드오프 추신수(가운데)가 27일(한국시간) 홈구장 글로브라이프파크에서 열린 보스턴전에서 4타수 3안타 2득점으로 맹활약하며 팀의 6-2 승리를 이끌었다. 7회말 아드리안 벨트레의 적시타 때 득점을 올린 뒤 덕아웃에서 동료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알링턴(미 텍사스주) | AP뉴시스

물오른 추신수 '시즌 첫 3안타'

이대호는 2루타 포함 2안타

추신수(34·텍사스)가 시즌 첫 3안타를 때려내며 4연속 경기 안타를 이어갔다. 추신수는 미국 텍사스주 글로브라이브파크에서 열린 보스턴전에서 1번 우익수로 나와 안타 3개를 포함해 2득점을 올리며 선두타자 몫을 톡톡히 해냈다. 공격 선봉에 선 추신수의 활약으로 팀은 6-2 승리를 거뒀다.

추신수의 역할은 1회부터 빛났다. 추신수는 상대선발 클레이 벅홀츠의 시속 145km 투심 패스트볼을 받아쳐 중전안타를 때려냈다. 1번타자가 물꼬를 트자 후속타도 폭발했다. 2번 이언 데스먼드부터 4번 아드리안 벨트레까지 4타자 연속 안타를 포함해 1회에만 5안타 1볼넷을 엮어 텍사스가 3점을 선취했다.

2회 2루 땅볼로 잠시 숨을 고른 추신수는 5회 우중간 안타와 7회 좌전 2루타를 기록하며 시즌 첫 3안타를 신고했다. 23일부터 4경기 연속 안타 행진에도 성공한 추신수의 이날 성적은 4타수 3안타 2득점. 시즌 타율도 0.237에서 0.270(63타수 17안타)으로 훌쩍 뛰었다. 텍사스는 1회 3점에 이어 6회 2점, 7회 1점을 추가해 보스턴을 6-2로 누르고 아메리칸리그 서부지구 단독선두를 굳건히 했다.

이대호(34·시애틀)도 선발로 나서 시즌 2번째 2루타를 포함해 멀티히트를 기록했다. 이대호는 세인트루이스와 홈경기에서 6번 1루수로 선발출전했다. 23일부터 5경기 내리 선발로 나선 이대호는 2회 첫 타석에서 우익선상으로 빠지는 2루타를 쳐냈고, 3회에도 중전안타를 때려내 물오른 타격감을 과시했다. 시즌 타율은 0.282(142타수 40안타)로 올랐다. 강정호(29·피츠버그)는 홈에서 열린 LA 다저스전에서 4번 3루수로 나섰지만, 4타수 무안타 1삼진으로 물러났다. 고봉준 기자 shutout@donga.com

코리안 빅리거 경기 결과
27일(한국시간)

이대호 시애틀
세인트루이스전(홈)
- 선발출전(6번 1루수)
- 5타수 2안타 1득점
- 시즌 타율 0.282(142타수 40안타)
- 팀 6-11 패배

추신수 텍사스
보스턴전(홈)
- 선발출전(1번 우익수)
- 4타수 3안타 2득점
- 시즌 타율 0.270(63수 17안타)
- 시즌 첫 3안타, 팀 6-2 승리

강정호 피츠버그
LA다저스전(홈)
- 선발출전(4번 3루수)
- 4타수 무안타 1삼진
- 시즌 타율 0.261(138타수 36안타)
- 팀 4-3 승리

아무리 투구수가 20개라지만…

송은범 '이틀만에 또 선발'


한화 송은범은 26일 대전 롯데전에 이어 28일 고척 넥센전에 또 다시 선발등판한다. '2일 이내 2연속경기 선발투수'는 2002년 LG 최향남 이후 14년 만이다. 스포츠동아 DB

2연속경기 선발…14년만에 처음
김성근 감독, 과거에도 7차례 기행

무려 14년 만이다. 현대야구에서 좀처럼 보기 드문 광경이 펼쳐진다. 한화 송은범(31)이 2경기 내리 선발투수로 나서게 됐다.

26일 대전 롯데전에 선발등판했던 송은범이 28일 고척 넥센전 선발투수로 또 다시 예고됐다. 27일 경기가 없는 월요일이라 하루 휴식을 취하긴 했지만, 2일 이내 2연속경기 선발등판은 2002년 LG 최향남(9월19일 수원 현대전·21일 잠실 SK전) 이후 처음이다.

송은범은 26일 롯데전에 선발등판했지만 1이닝 만에 강판됐다. 1회초 2사까지 잘 잡아놓고 김문호와 황재균을 볼넷으로 내보낸 뒤 박종윤에게 3점홈런을 내줬다. 투구수는 20개. 그런데 2회초 마운드에 오른 투수는 심수창이었다. 구단 발표로는 송은범은 특별한 부상이 없었다.

송은범은 28일 넥센전 선발투수로 다시 예고됐다. 아무리 투구수가 20개였다고 해도, 이렇게 이틀 이내에 2경기 내리 선발투수로 등판하는 건 현대야구에서 사실상 찾아보기 힘든 일이다. 초창기인 1980년대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는 이런 일이 종종 벌어졌지만, 선발로테이션이 정착된 1990년대 중반 이후로는 사실상 자취를 감춘 선발투수 기용법이다. 1990년대 중반 이후로 보면 1997년 쌍방울 오상민과 임창식이 이틀 연속 등판했고, 2002년 LG 최향남, 그리고 이번에 한화 송은범이 이틀 만에 2연속경기 선발등판하는 주인공이 됐다. 공교롭게도 최근 4차례 모두 김성근 감독이 맡은 팀이었다. 1990년대 이후로 보면 총 17차례 중 김성근 감독이 맡은 팀에서 8차례 나왔다.

최근 사례인 2002년 기록지를 살펴보면 최향남은 9월 19일 수원 현대전에 선발등판해 투구수 5개로 1타자를 잡은 뒤 곧바로 강판됐다. 이어 좌완 라벨로 만자니오가 교체투수로 마운드에 올랐다. 최향남은 하루 쉬고 21일 잠실 SK전에 선발등판해 5.1이닝 5실점으로 패전투수가 됐다. 최향남 이후 14년 만에 역사를 이어가는 송은범은 과연 넥센전에서 어떤 투구를 보여줄까. 이재국 기자 keystone@donga.com

2일 이내 2연속경기 선발등판 사례(1990년대 이후)

연도	날짜	투수(팀)	상대(구장)	날짜	상대(구장)	감독
1990	7.10	김성길(삼성)	OB(대구)	7.12	OB(대구)	정동진
	8.3	최창호(태평양)	빙그레(대전)	8.4	빙그레(대구)	★김성근
	9.27	구동우(OB)	롯데(사직)	9.29	LG(잠실)	이재우
1991	4.28	정윤수(삼성)	LG(대구)	4.30	태평양(인천)	★김성근
	6.19	김기범(LG)	삼성(대구)	6.20	삼성(대구)	백인천
	7.16	문병권(LG)	태평양(인천)	7.18	태평양(인천)	백인천
	8.14	박용준(삼성)	빙그레(대구)	8.15	빙그레(대구)	★김성근
	8.25	양상문(태평양)	쌍방울(전주)	8.26	쌍방울(전주)	박영길
	8.27	성준(삼성)	태평양(인천)	8.28	태평양(인천)	★김성근
1992	5.28	김상진(OB)	쌍방울(전주)	5.29	빙그레(대전)	윤동균
	8.6	김상진(OB)	롯데(사직)	8.8	롯데(사직)	윤동균
	9.6	이진(OB)	빙그레(잠실)	9.8	롯데(사직)	윤동균
1994	7.8	박충식(삼성)	OB(잠실)	7.9	OB(잠실)	우용득
1997	6.13	오상민(쌍방울)	LG(전주)	6.14	LG(전주)	★김성근
	9.5	임창식(쌍방울)	현대(수원)	9.6	현대(수원)	★김성근
2002	9.19	최형남(LG)	현대(수원)	9.21	SK(잠실)	★김성근
2016	6.26	송은범(한화)	롯데(대전)	6.28	넥센(고척)	★김성근

챔피언스필드 소송전이 중요한 이유

향후 야구장 분쟁 불씨 가능성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 인근 주민들이 소음과 빛 공해 피해와 관련해 제기한 집단소송이 재개된다. 전례가 없던 소송전의 결과는 향후 야구장 관련 분쟁의 불씨가 될 수 있기에 매우 중요해졌다.

광주광역시 북구 임동 챔피언스필드 인근 H아파트 주민 732명은 광주시와 KIA 구단을 상대로 지난해 9월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챔피언스필드 개장 이후 발생한 소음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그러나 야구시즌 종료로 소음 감정을 하지 못하면서 소송이 해를 넘겼다. 양측은 구체적인 소음 감정의 방법 등에 대해 의견차를 보여 왔다.

올 들어 소음피해대책위원회가 손해배상 금액을 1인당 1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증액하면서 소송가액 증가로 재판부가 단독에서 합의부로 변경됐다. 앞선 재판부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소음 감정 방법과 횟수 등에 대한 쟁점은 여전하다. 내달 15일부터 새 재판부가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하는데 이 부분이 핵심이다.

벌써부터 양측의 치열한 다툼이 예상된다. 대책위원회 측은 소음은 물론 빛으로 인한 피해까지 소송을 확대했다. 조도 측정 역시 서로에게 유리한 방식을 주장하고 있다. 예를 들어 대책위원회가 빛이 들어오는 부엌 창에서 측정을 주장한다면, 구단 측은 주민의 생활권인 거실에서 측정해야한다는 식이다. 부엌을 통해 빛이 들어올 경우 거실에선 조도가 확연히 낮아질 수밖에 없다.

이번 소송 결과는 야구계에 중요할 수밖에 없다. 야구장 공해 관련 판례가 나올 경우, '줄소송'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당장 상당수 구장 인근에 주택가가 있다. 한적한 곳에 신축한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 정도만이 자유롭다.

현실적으론 야구장 신축에 앞서 입주한 주민들의 소송이 우려되는데, 마산종합운동장 부지에 신축되는 NC의 새 야구장이 이에 해당된다. 이제 막 공사를 시작했는데도 벌써 민원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KIA는 최근 홈에서 이겨도 흥이 안 난다. 홈경기 시 스피커 볼륨을 최대한 줄인 탓에 응원전에 힘이 떨어졌다. 이마저도 부족해 경기 막판엔 아예 스피커를 끄고 침묵 속에 경기가 진행되는 일도 있다.

광주시는 비용절감을 위해 무등종합경기장을 헐고 야구장을 신축했다. 구단이 원한 입지도 아니었다. KIA는 올해 주민들의 집단소송은 물론, 모기업에서 300억원의 건설비를 대고도 특혜 시비로 운영권 재협상을 하고 있다. 야구는 프로 원년부터 광주·전남 지역의 '문화'였다. 그러나 KIA는 벙어리 냉가슴 앓듯 야구 외적인 문제로 골머리를 썩고 있다. 이명노 기자 nirvana@donga.com

1위보다 꼴찌가 궁금한 KBO리그

5위 LG - 10위 한화 4.5게임차

1위 보다 궁금해진 꼴찌싸움.

시즌 중반으로 접어든 2016 KBO리그는 1위 두산의 쉼 없는 질주, 그리고 2위 NC의 끝없는 추격이 뜨겁다. 넥센은 한 발 뒤에서 꾸준히 3위를 유지하고 있다. kt 조범현 감독은 "큰 이변이 없는 한 앞에 팀들은 계속 달려갈 것 같다. 그러나 아직 중위권 팀들은 멀리 도망가지 못했다. 5위 다툼은 마지막까지 치열할 것 같다"고 말했다.

27일 현재 4위 SK와 5위 LG의 게임차는 단 2경기다. LG부터 10위 한화까지 게임차는 4.5경기에 불과하다. 3연승 혹은 3연패에 따라 순위가 5위부터 10위까지 급격하게 오르락내리락할 수 있다. 8~9위에 머물고 있는 kt 선수단이 5위권 진출에 희망을 걸고 있는 이유다. 그러나 이는 바꿔 말해 최대 5개 팀이 최하위 후보인 상황이기도 하다. 2016시즌 꼴찌는 팀 입장에서 매우 망신스러운 숫자다.

KBO는 지난해 처음으로 10개 구단 체제로 리그가 재편됐다. 역사상 첫 번째 10위는 1군 데뷔시즌을 치른 kt다. 올해는 상황이 다르다. 2015시즌은 kt의 최하위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2016년 최하위는 사실상 진정한 첫 번째 10위로 기억될 수 있다.

각 팀 전력과 팀 상황이 복잡하고 변동성이 커 최하위 후보를 꼽기 어렵다. 리그 팀 연봉 1위 한화는 개막전 우승에 도전할 수 있는 전력을 갖췄지만 외국인 선수의 연이은 이탈, 송은범의 2경기 연속 선발 등판 등 매우 비정상적인 선수기용으로 예측이 더 어렵다. kt는 유한준, 이진영, 김상현 등 부상 선수들이 복귀했지만 외국인 투수 슈가 레이 마리몬이 여전히 부상 중이다. 삼성은 외국인이 모두 이탈한 최악의 상황이다. KIA는 임창용의 복귀라는 호재를 앞두고 있다. 이경호 기자 rush@donga.com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